

[여수·순천·광양]

여수지역 섬 귀성객 70% 늘었다

작년 1만 9천명서 올 3만3천여명 다녀가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용근)는 올 추석 연휴기간에 여수-거문도 항로 등 여수 지역 11개 항로를 이용한 귀성객수가 지난해 1만9천568명보다 약 70%가 증가한 3만3천309명

811명 보다 약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도서지역을 찾은 귀성객이 증가한 것은 올 추석 연휴기간이 길었던 때문"이라며 "양호한 기상상태로 원활한 해상수송이 이뤄졌으며 단원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는 여수-고흥지역 11개 항로에서 3일간 여객선 357회 운항했으나 올해는 6일간 492회를 운항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여수 도시계획 도면, 읍·면·동에 배치

도시계획 시민참여 유도

여수시가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업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면을 제작 배부하고 있다.

여수시는 9일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재산권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시계획 도면을 제작, 읍·면·동사무소에 배부기로 했다"

고 밝혔다.

여수시는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는 1:5,000 축척 도면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도면을 시민들이 열람·활용 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도시계획에 참여한다는 자부심도 고취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성공 귀농 도와드립니다

광양농기센터 안내교육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장 은퇴자와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안내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이달말까지 교육생을 모집한 후 오는 11월 중순경 예비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작목별 구체적인 재배기술을 가르치는 심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예비교육은 광양시 농업현황과 발전전략, 작목별 소득과 경영상의 장·단점, 농지 및 산지 이용에 따른 제도 등 좌담식 강의와 귀농인의 성공사례를 현장 실습을 통해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교육 신청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61)797-3554와 가까운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로 하면 된다. /광양=김춘희기자 chkim@

“111억 도로공사 재검토하라”

광양시 용곡리~수평리 군도 6호선 4차선 개설 지역민들 “실효성 없는 선심성 사업” 거센 비난

광양시가 11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군도 6호선(옥룡면 용곡리-수평리) 신설공사에 대해 지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총 연장 4.34km의 군도 6호선은 111억8천700만 원을 들여 오는 2010년까지 4차선 도로로 개설될 계획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실시계획구역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1억8천700만 원의 역역비가 투입된 상태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대량유출과 급격한 노령화로 신설 도로에 대한 통행량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옥룡면 용곡리 주민들은 현재 광

양읍을 통해 옥곡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옥곡 수평리 주민들도 동광양-옥룡면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새로 도로가 뚫리더라도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욱이 신설 도로가 통과하는 구간이 산지여서 공사가 시행될 경우 산립 파괴는 물론 동물의 이동로를 끊어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공무원 이모씨는 “예산 교통량이 극히 적은데도 1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선심성 사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공무원들이 고발한 예산낭비·비리백태에서도 이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춘희기자 chkim@

/지역 단신/

여수 화재건수·인명피해 감소

올들어 여수소방서(서장 이관형)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와 인명·재산피해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올들어 9월 말 현재 화재 78건 발생에 인명피해 2명(사망 1,부상 1), 재산피해 3억 1천4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화재건수는 2건, 재산피해 9천600만 원이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화재 장소별로는 주택(아파트)25건, 차량 12건, 점포 7건 순이며, 원인별로는 전기 30건, 화기취급 부주의 6건, 방화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여관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소방 안전점검으로 화재발생이 감소했다”며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한 피해주민들에게 복구 및 구호제도를 안내·지원해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광양시 청소년녹색문화체험

광양시가 청소년에게 산림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10일부터 27일까지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10개 학교 1천2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녹색문화체험교육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숲길 체험과 황토길 걷기, 자연에 대한 정보 표현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순천대 산림지원학과 조계중 박사를 비롯한 전문 강사진이 강의에 나선다.

광양시 관계자는 “가족단위나 일반단체도 녹색문화체험교육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에 주력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숲을 이해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양=김춘희기자 chkim@

여수야경 확 바뀐다 야경 코스 등 관광상품 개발 나서 공공시설엔 야간 경관시설 의무화

여수시가 야경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어 여수의 밤 풍경이 달라질 전망이다.

여수시는 돌산대교, 구항 해양공원, 진남관, 오동도 등을 연결하는 야경 코스를 개발하고 해상에는 관광 유람선을, 육상에는 야간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시킬 계획이다.

또 야간 경관 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이나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야간 경관 시설을 갖추도록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1주일 일정의 세계 불꽃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10여개 축제 개최시 야간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여수-고흥지역 11개 연륙·연도교 등 시공 및 계획 중인 18개의 해상교량에 야간 경관 조명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사업 시행령에 조명 시설 설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8억원의 예산을 확보, 이미 개통된 백야대교에 야간 조명 시설 공사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 야시장, 소풍광장 등도 야간 관광코스로 개발, 실질적인 관광 소득 증대를 꾀할 방침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光州日報 記事內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황토셀침대 (HSELL.co.kr) - 더 좋은 황토셀침대, 빛교을 명품!!

RYN 마사이족 워킹슈즈 - 스포츠화 147,000원, 케주얼화(신사화) 197,000원

대인동상일부동산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유성공인중개사 - 광주최고의 주거단지, 광천동 재개발지구

인애공인중개사 - 햇집임대, 햇집건물매매

동부부동산컨설팅(주) - 일일분권, 시무실(사옥) 용인대(매매)

하이랭크 컨설팅 - 토지, 건물, 공장 및 창고, 땅투자

방방국국부동산컨설팅(주) - 법인 설립 목적 및 사업 내용, 임대관리, 금매출